

## 영산강 살리기 본격 시작

### 2개 보물막이 공사 내일 착공 환경평가 마무리...BOD 등 개선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 협의가 마무리되고, 오는 10일부터는 영산강에 새로 들어설 2개 보의 물막이 공사가 착공되는 등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화된다.

〈관련기사 3면〉

전남도와 환경부는 8일, 영산강을 포함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난 6일 최종 관문인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맞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2012년에는 지난 2006년에 비해 영산강의 수질은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사업 구간 내 일부 습지는 작·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적으로는 영산강 사업지구 4개 중점관리구역에 대한 수질예측 모델링 결과 영산강 상류와 중류, 하류 대부분의 지역에서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와 TP(총인)배출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류인 광주 2-1지점의 경우 TP배출도가 0.746에서 0.185로 대폭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됐으며, 하류인 무안 1지점의 TP배출도 역시 0.331에서 0.097로 낮아지고 BOD도 3.7에서 2.6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영산강 습지 가운데 18개 지역, 139만㎡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으며,

특히 습지보호구역인 담양습지의 경우 면적 기준 2.7%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는 원형 그대로 두거나 영향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

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0일에는 영산강 승촌보, 그리고 12일에는 죽산보 물막이 공사를 시작하는 등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필요한 기초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애초 지난달 중순부터 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지연되면서 착공이 늦어졌으며, 지금까지는 이 평가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임시 사무실 개소 등 가시성 공사만 진행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어서 병행 시공이 허용

된 임시물막이, 진입로, 준설 등 '패스트 트랙(fast track-실시설계·시공 동시진행)' 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영산강 승촌보와 죽산보는 올해 말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2011년 완공될 예정이다. /홍행기자 redplane@



수능 사흘 앞... 졸음쫓는 '복도 열공'

2010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12일)을 나흘 앞둔 8일 광주대광역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두명이 휴일 자율학습 도중 밀려오는 졸음을 떨쳐내기 위해 차가운 복도에서 공부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 지방선거 경선 대비 당원 신청 폭주

### 민주시·도당 1만건 넘어...당비 대납 등 논란 예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광주시당 및 전남도당에는 최근 진성당원 신청이 폭주하는 등 벌써부터 물밑 파열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에 대비, 광주·전남지역 각 후보 입지자 진영에서 자신의 지지세력 형성을 위해 진성당원 신청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열기를 띠 것으로 보여 당비 대납 등 각종 논란이 예상된다.

8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 10·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이후, 월 1천원의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신청이 1만여 건이 넘고 있다. 올 상반기

기만 해도 한 달 평균 진성당원 신청 건수가 수백 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상황은 마찬가지. 최종 집계는 되지 않았지만 10월은 물론 11월의 진성당원 신청 건수가 1만여 건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입지자 진영에서 조직을 총동원, 진성당원을 경쟁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진성당원을 최대한 확보해 내년 지방선거 후보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선 방식과 진성당원 자격 등에 대한 명확한 당헌 및 당규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진성당원 모집 열

풍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전초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모인사 측 핵심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원 경선 및 당원 여론조사 방식이 도입될 것이 확실하다"며 "이를 대비해 진성당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서는 당비 대납, 대리 접수 등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당비를 현금으로 받지 않고 계좌이체나 휴대 폰 결제 등을 이용하는 한편 직접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두바퀴로 만드는 가을 추억

### 2009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

'녹색성장'의 아이콘 자전거문화의 확산을 위해 '2009 그린 광주·전남 자전거 축제'가 열린다. 환경과 건강을 모두 살리는 자전거 타기를 널리 보급하고 참가 가족·동호인들의 친목을 다지는 이번 자전거 축제는 명실공히 호남 최대의 자전거 문화축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늦가을 아름다운 남도의 햇살에 빛나는 은륜의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대회 홈페이지 bike.kjmedia.co.kr

- 일시: 2009년 11월 14일(토) 오전 9시~오후 1시
- 장소: 광주 금호 패밀리랜드 주차장
- 종목: 22km로데이스/4km거북이 행진
- 주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사
- 주관: 광주광역시 사이클연맹, 스포박스
- 협찬: 한국수자원공사, 전남개발공사, KSPPO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본부
- 문의: 062) 220-0541

- \*로데이스 참가자 전원에게 고급 바이크 용품을, 거북이 행진 참가자 전원에게 자전거 안전모를 드립니다.
- \*거북이 행진 참가자 편의를 위해 당일 현장대여 자전거 100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전접수 062) 220-0541>

光州日報社

## 20~24일 북·미 대화 열릴 듯

북·미 양자대화가 이르면 이달 중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과 미국 등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북수의 외교소식통들은 8일 "미국 정부가 곧 북·미 양자대화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특히 조만간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일정을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미대화는 추수감사절을 피하는 미국의 관행을 감안할 때 추수감사절 연휴(25~29일)직전인 20일부터 24일까지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스

**아모레퍼시픽 한물 停은..**

한국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한방'과 '피부'의 조화와 '공명' 상태인 '물리'를 구현하기 위한 한물 제품으로 몸과 마음의 휴식을 구현

고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한방 스파 SHOP

**한물 停은..**

- 1인 1일 케어
- 한방 화장을 한물 전용 사용
- 물수제비순수제 피사제
- 아모레퍼시픽 뷰티포럼
- ※ DR. Cashin 사용가능